

“우리가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은 너무 좋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캄보디아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고 피부도 까맣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한국 성도님들과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존중하지도 않았던 모습들이 떠올라 그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발을 씻겨 드리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울며 웃으며 발을 씻긴 후에 아이들은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었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파송 받은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그동안 제가 캄보디아에서 특별히 고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캄보디아가 다른 선교지나 한국의 목회보다 더 힘들거나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비전 트립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아이들을 통해 받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위로와 격려에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11박 12일의 비전 트립을 마쳤습니다. 처음 비전 트립을 계획할 땐,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비전 트립을 통해 은혜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두 번째 비전 트립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다시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품고 가는 날이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비전 트립을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동역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존중이 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아이들의 마음마저 감동하게 했습니다.

교회 건축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공정이 빨라서 이런 공정이란 올해 성탄 예배는 새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층의 바닥 타일 공사는 약 6~70% 정도 진척되었고 계단과 베란드의 난간 설치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출입문과 창문 설치, 전기 시설, 내외부 페인트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3층과 옥상은 건축비가 부족해서 남겨둘 생각이었는데 약 1,500만 원 정도면 전체 완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남은 건축비도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가까우니 자연스레 한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늘 함께 선교지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동역자에게 감사드립니다.

求主待望 2018년 11월 5일

캄보디아 선교사 김성길, 정심영 드림

기도 제목

- 1) 뿌르도툼 교회 건축을 위해, 부족한 건축비가 채워지도록. (약 1,500만원)
- 2) 함께 동역할 신실한 현지 사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 3) 성탄 축하 친구 초청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4)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아내의 손(관절염)이 잘 치료되도록.

이메일 / rokurutom@gmail.com

전 화 / +855 12-794261(캄보디아 전화)

홈페이지 / <http://rokurutom.net>

카톡 아이디 / rokurut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ambodiaMission>

